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채색 인물상에 관한 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김 원 근

채색 인물상에 관한 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 성 복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김 원 근

인 준 서

김원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물질문명이 가져다 준 병폐와 현대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물질화로만 치닫고 있는 상업주의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정신의 빈곤현상과 인간의 소외의식을 초래하였고, 반인륜적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자연에 대한 과감한 응전과 정복으로 “살아있을 공간”을 황폐화시키고 비인간적 사회순응을 강요한 기계문명의 폐해는 인류 멸망의 위기까지 예감하고 있다. 게다가 서구적인 사유방식의 영향으로, 자연의 질서를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우리의 자연관은 점차 인간중심의 자연관으로 바뀌면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연을 관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인 작품의 일관된 관심은 현대문명 속에 소외된 인간이 본인 스스로 의식전환을 통해 본질에 가까워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사유에 기초한 것이다. 공통된 분열 상태에서 인간상에 대한 조형화 작업은 현대인의 불안한 삶속에 긍정과 유머의 본능으로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자각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본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정신적 배경, 표현 방법 등을 서술한 것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과 그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작품의 정신적 배경으로 현대문명 속의 소외된 인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간 존엄성 자각이라는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들과 표현 방법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개별 작품 설명을 위해 작품 사진과 작품제작방법, 내용 등을 서술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2
1. 작품의 형성 배경	2
1) 인간의 심리적 불안	2
2) 유머로서의 상처 치유	3
2. 조형적 표현방법	5
1) 채색의 생동감	5
2) 한국적 얼굴과 풍부한 양감	7
3. 작품분석	10
III. 결론	34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복서, 특수시멘트, 철근, 수성페인트, 1200x900x2000(cm), 2014 … 13
- 【작품 2】 부케, 특수시멘트, 철근, 수성페인트, 2300x1200x2650(cm), 2014 … 15
- 【작품 3】 사랑그눔, 특수시멘트, 철근, 수성페인트, 1400x1000x2600(cm), 2013
..... 17
- 【작품4】 관심, 특수시멘트, 철근, 수성페인트, (남)1700x1200x3000 (여)1400x
1000x 2800(cm), 2013 19
- 【작품 5】 봄 바다, 특수시멘트, 철근, 수성페인트, 1800x1400x3300(cm), 2013 … 21
- 【작품 6】 두 남자 이야기, 합성수지, 아크릴 물감, 45x35x75(cm), 2012 … 23
- 【작품 7】 늦 여름, 합성수지, 아크릴물감, 47x42x110(cm), 2009 25
- 【작품 8】 남자 둘, 합성수지, 아크릴물감, 29x25x62(cm), 2014 27
- 【작품 9】 큰아들 내외, 나무, 먹물, 55x45x72(cm), 2010 29
- 【작품 10】 여행, 호두나무, 아크릴물감, 먹물, (여)25x12x42 (남)25x13x45
(cm), 2010 31
- 【작품 11】 길, 회록암, 2000x1300x2300(cm), 2013 33

I. 서론

현대인들의 정신세계는 날이 갈수록 메말라 가고 있다. 우리들은 물질문명의 발전이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과의 대면의 시간인 고독을 두려워하고 끝없는 욕망에 영혼을 잃어버린 채 심각한 사회분열과 냉소적 허무주의란 집단적 사회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단면을 왜곡된 인간의 형태로 현사회의 우울감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자체가 아닌 사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보이는 무표정한 인물상들은 현대문명의 궤적을 조형적으로 떠안고 있다. 현대인의 불안정한 인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신의 본질 찾기의 필요성이라는 각성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현대문명 속의 소외된 인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간 존엄성 자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도입한 소재들의 의미와 표현 방법을 조형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인 작업에 나타나는 전통 표현 기법은 어디서 출발하였는가 하는 그 발상을 추적하고 또한 현 사회에 이르러 변화, 발전된 본인만의 인물상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전통 미술이 본인의 인물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의 형성 배경

1) 인간의 심리적 불안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육체 속에 내재하는 고립된 자아로 인식하고 마음과 육체는 떨어져 나왔으며 마음이 육체를 움직여야 한다고 여기면서 의식적 의지와 무의식적 본능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 냈다.¹⁾ 동양의 세계관에서는 어떤 대상도 활동하고 변하는 성질을 가진 전일적 상호 연관성을 갖는 존재로 여기는 것과 상반된 시각이다.

그 결과 개인은 사회의 요구와 자신의 감정을 분열시키고 점차 더 많은 분야로 분열의 영역을 넓히게 되었다. 이것은 한없는 갈등을 일으켜 혼란과 좌절을 유발시키게 된다. 수많은 갈등이 낳은 마음의 불안과 고독은 인간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 냈다.

또 한명의 현대인으로 본인이 겪는 분열 상태는 소외와 고독이다. 뚱뚱하고 거친 외모를 가진 본인이 받게 되는 사회의 시선은 외형과 내면을 분리시켜 결핍의 결과물로 받아들인다. 또한 시대의 산물로서 한국의 70년대를 유년기로 보내고 한 집안의 장남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타고난 본성을 억누르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구성인으로 만들어 내려는 외부의 작용이 본인에게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자 하는 유머와 재치는 내적 분열을 겪는 과정에서 또 다른 유머, 즉 블랙코미디로 만들

1) 프리초프 카프라 지음, 이성범 옮김,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2006년, 41p.

어 지게 되었다. 작업 과정에서 본인은 무의식적으로 시대의 불안을 표현하지만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유머를 작품 안에 담아내면서 창조의 에너지를 얻고 극복해야 할 마음의 불안 상태를 치유한다. 유머가 분열을 겪는 인간에게 치유의 대안이 되고 인간 존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유머로서의 상처 치유

본인 조각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무표정하고 무뚝뚝해 보이는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특유의 바위 같은 표정과 무겁고 진지한 인물들이 주인공이 된다. 그것은 본인의 기억 속에 주변 인물들은 암울한 시대가 만들어낸 힘겨운 인간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암울한 이미지만을 보았다면 본인에게 창작의 긍정적 에너지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기억이란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입수한 외부의 정보를 저장한 다음 그때그때 재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기억은 수시로 재생하지 않으면 결국 망각하거나 유사 기억과 혼동을 일으킨다. 작업의 시작은 기억의 조작이며, 그 끝은 기억의 혼돈이 된다. 그 작업은 누군가에게 또 다시 기억의 조작과 혼돈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 인간에게 자신의 추억은 소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추억을 항상 시적으로 채색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물론 예술적 재구성의 근거를 제공하기 전에 추억은 어느 정도 보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특수한 감정 분위기가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 감정 분위기의 상실을 막기 위해 작업 방식에 있어 인물은 특정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속에 담긴 형상을 끄집어내어 형상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단면을 왜곡된 형태와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추억으로 남겨진 감정들을 더듬어 가며 작업한다. 한국의 사회적 정서를 조합하여 현 사회의 우울감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자체가 아닌 사회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인물을 표현하는데 있어 본인이 겪은 민족성, 가부장적인 가정사, 사회적 관계, 정으로 맺어진 관계, 좌절, 억압, 슬픔, 희망, 사랑 같은 특정한 순간의 기억을 절실한 감정 상태로 재구성하여 객관적 상태로 조형화 하였다. 공통적으로 다루게 되는 인물은 친숙하고 그 표현과 형태에 있어 자유롭다. 그것은 시대 반영을 중심으로 보통사람의 인간사를 표현하고 모두에게 위안이 되는 인물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인물상들을 통해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완전히 치유될 수 없는 불안과 고독은 블랙유머, 즉 순간의 씩씩한 웃음을 통한 카타르시스에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을 관찰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힘을 기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통으로 만연해 있는 사회적 억압이나 내면의 불안 등을 함께 인지하고 상호 연관적으로 유동의 변화의 성질을 가진 존엄한 생명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본인만의 해학적인 인물상은 불안한 삶 속에 소외와 갈등을 경험하고 고독을 겪지만 긍정과 해학의 본능을 가진 양면적 인간을 주제로 한국 전통 미술이 담고 있는 인간에게 주는 배려와 깊은 명상의 흔적을 작품 안에 표현하려는 본인의 의지가 작품의 전체적인 배경이 된다.

2. 조형적 표현방법

1) 색채의 생동감

조각의 ‘생기론’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헨리 무어의 이야기 중에 “나는 작품이 우선 그 자체의 생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표현의 미와 표현의 힘 사이에는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 전자는 감각을 즐겁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후자는 정신적 생기를 지니고 있는데, 그 정신적 생기는 나에게 감각보다 더 깊은 감명을 주고 더 깊은 인상을 준다.”²⁾라고 했는데 본인에게 표현의 힘을 갖게 하는 정신적 생기는 해학이 주는 즐거움의 에너지이다. 불안과 고독 속에서 즐거움과 해학으로부터 얻어진 에너지는 일상의 고됨으로부터 영혼을 쉬게 하고 삶의 긍정의 힘을 믿는 발판이 될 것이다.

정신적 생기를 표현하기 위해 표현의 힘에 중심을 두고 작업하였다. 본인의 작품에 있어 표현의 힘이란 구체적으로 본인을 그대로 옮겨 독특한 캐릭터로 만들었다는데 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 본인의 경험적 감정과 본인이 갖고 있는 감각을 직접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갖게 된다.

정서적 연결은 커다란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관객들을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바로 이 정서적 연결이 관객들을 삶의 인식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한국 전통 미술의 표현 기법이 관객과 정서적 연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본인 작품에서 대부분의 표현 기법은 전통 미술의 특징과 전통성을 재현하는데 기초를 둔다.

채색 조각으로 민화의 채색 기법, 얼굴 표현에 있어 한국 불상, 목인 조각에서의 간결한 형태를 본인 작품의 대표적 표현 기법이라 할 수 있겠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목조 각에 색을 입히게 되면서 다양한 소재와 표

2)하버트 리드 저, 김성희 역, <간추린 서양 현대조각의 역사>, 시공사, 1998, p. 153

현들로 민간에서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지게 된다. 기교적으로 숙달되지 않아 다듬어지지 않은 단단한 선과 거친 표면이 민화에서 사용되는 다양하고 자유분방한 표현을 통해 밝고 화려하게 변화한 것이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작품에 표현된 질박한 선과 대담한 표현은 규격화 되고 진부한 아카데미즘³⁾에 의해 억압 되지 않은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서민의 삶과 그들이 처했던 현실 상황을 주제로 독특한 양감과 민화의 채색이 한국적 미감을 극대화 했다고 본다.

본인의 작업 과정에서도 채색의 단계에서는 투박하고 거친 느낌의 양감이 억압된 인물상이었으나 채색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게 된다. 인물의 감정상태도 표현 할 수 있게 되어 여러 주제를 제한 받지 않고 선택하여 작업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민화 중에서도 황해도 민화의 채색이 본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밝고 명랑한 이미지의 황해도 무화는 관서 지방의 곡창 지대와 바다의 풍부한 물산이 낳은 여유로움과 유통성, 그리고 불화처럼 이상화 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이미지의 종교화라는 새로운 영역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다.

황해도 무화의 채색 특징은 풍부한 색감을 사용하고 평면적 기법이 아닌 입체감을 살린 기법으로 밝은 정서를 표현 하였다. 당시의 황해도 지역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운 미의식의 분위기가 채색에 그대로 전해진다.⁴⁾

그러나 현대에 와서 사찰의 벽화나 동자 상, 목인 조각들에서 보게 되는 색은 본래 그대로의 색이 아닌 빛바랜 색채이다. 외부적 영향(태양, 눈, 비, 바람, 오랜 시간)등과 인위적 영향(덧칠하고 벗겨지고 또 덧칠한 역사적 행위)에 불규칙적이고 경계 없는 색은 안정감과 담담하고 순박한 감동을 주게

3) 예술상의 아카데미즘은 흔히 고전의 규준과 전통이나 규칙에 엄격히 따르려는 경향을 자칭 하는데, 개성이나 창의성이 빈곤한 형식적인 경향에 빠질 위험성을 지니기 쉽다.

4) 정병모 저, <민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돌베개, 2012, p.308

된다. 그리고 자연적 시간에 따라 변화된 색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재현하기 불가능한 색이다.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 본인이 사용하는 채색 기법은 원색을 꼼꼼 하게 칠한 후 진한 색을 덧칠하고 마르기전에 부분적으로 닦아내며 또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들어간 부분은 진하게 덧칠하고 나온 부분은 밝은 색으로 덧칠하여 살짝 닦아내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채색한다. 이렇게 덧칠 하는 채색 기법은 정서적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인물의 다양한 성격을 세심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자가 고유의 색을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림자를 표현하지 않고 대신 형태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어두운 톤으로 볼륨을 만들어 마무리했다.

2) 한국적 얼굴과 풍부한 양감

얼굴에 있어 불상은 완전한 인격체이므로 그 모습이 완전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상이 원만해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원만이란 말은 서양의 ‘완전한’ 혹은 ‘이상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단지 그 이상적인 모습이 동-서양이 서로 다르고 또 민족에 따라 달랐을 뿐이다.⁵⁾ 이처럼 완전한, 혹은 이상적인 얼굴 표현을 위해 불교 미술 뿐만 아니라 조각가에게 구상 조각에 있어서 우리 민족에 맞게 조형 작업을 해야 하는 큰 과제가 숙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완성된 상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본인은 얼굴 표현에 있어 광대뼈와 뺨을 먼저 완성 시킨다. 그 이유는 눈동자 다음으로 정신을 드러내는 매개체가 광대뼈와 뺨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은 사물을 볼 때 중심 시야와 주변 시야를 사용하는데 중심 시야는 사물의 정밀한 부분을 보고 주변 시야는 그림자 부분을 보게 된다. 그래서 본인은 눈과 광대뼈와 뺨을 표현 하는데 있어 불상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한국 불상의 특징은 얼굴의 중심이 되는 눈, 코, 입, 중 어디

5) 강우방 저, <불교 조각 I>, 솔, 2003, p.25

에도 두드러지게 명확한 표현을 하지 않고 광대뼈와 뺨을 표현 하는데 있어 그 감정과 성격을 담을 뿐이다. 그래서 불상은 우리의 일상적 정서 그 자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본인도 관객과 정서적 연결을 위해 불상에서의 일상적 정서의 효과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흘려보는 것과 깊이 감상하는 것의 차이가 보는 사람의 감정 차이로 이어지게 하는 부분이다. 사물을 보는 것은 눈이지만 그 눈은 오직 마음의 길이 가는 곳에만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에 본인 작품의 인물상 들은 보는 이의 심리 상태에 따라 동일시 되는데 중심을 두어 불상의 표현법을 따른 것이다.

형태를 과장 하는 것은 내용을 단순화 시키고, 모든 세부적인 것들을 제거하여 표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다. 그것은 본인의 작업 중에서 의복의 표현에 있어 실제 옷의 단추, 지퍼, 장식. 등등의 세부적인 표현은 생략하고 셔츠의 깃을 과장 하거나 치마 주름을 확대하고 섬유의 색감과 질감은 비현실적이며 얼굴과 복부를 풍만하게 강조 하였다.

순수해진 형태는 직접적으로 생명의 욕구와 삶에 대한 욕망의 끈질긴 민중성을 보여준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성을 중점적으로 회고하기 쉬워진다. 초자연적 남성의 역할을 요구하는 시대(힘과 권력, 돈, 인간성, 가정과 사회에서 둘 다 완벽한 역할을 요구하는 현실)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똥머리(위로 말아 묶은 헤어스타일), 레깅스, 양복, 그 밖의 다른 의상들, 삼선 슬리퍼 등등의 작품의 소재들은 시대를 표현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한 것이다. 한국의 시대상과 독특한 인물상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묘사는 생략하고 본인이 선택한 몇 가지 소재만 부각시켜 드러냄으로써 간결한 구성의 법칙을 만들어 냈다. 관객에게 보여 주고자 하는 부분만 드러내거나, 정면을 응시하는 인물들은 절대적으로 본인에 의해 강요 되어 진다. 작품 속의 모

든 인물들은 감정을 들어 내지 앓으면서 서로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커다란 움직임 없이 부동의 자세 (약간의 경직된 자세)로 서있다. 이 점에서 아방가르드가 추구했던 것에 무관심하고 적대적이었던 보테로의 작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의 인물들 역시 비사실적인 자세를 의도적으로 부여하면서 결정적인 정지 상태를 묘사하였다.⁶⁾ 그의 그림에서 매우 세심하게 정지된 포즈와는 차이가 있다.

6) 제라드 두로조 저, 이정실 역, <OTERO>, 중앙일보사, 1994, p.13

3. 작품분석

감정의 여백을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무표정한 인물을 표현하였다. 도무지 이 인물이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없어 오히려 더 생생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전해진다. 그것은 무표정에는 복잡 미묘하고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표정한 캐릭터를 창조하여 거대한 사회구조 속에 놓여있는 인간상을 파악하고 인간을 개인적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사회라는 조직 속에서 저마다 떠맡고 있는 사회적 역할로서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사회전체를 비판한다.

개개인들은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오직 어설픈 치장의 도구에 의지한 체 시대의 소용돌이를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한사람의 드라마 주인공인 건달은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삶의 비극적 경험들로 하여금 비주류의 사람들과 반항의 이미지 캐릭터를 창출 하였다. 냉소적 무표정의 얼굴에서는 내면적 갈등과 사회조직을 충돌시킴으로써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꽃 남방 속에서 부귀영화의 뜻을 가진 모란꽃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사회적 모순인 꽃 남방 속에 가려진 인간의 알맹이인 몸뚱이에는 외로운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에 포커스가 맞추어 진다. 뚱뚱한 꽃 남방의 건달에서는 인간의 허영, 고독, 속성, 사회적 이질감을 담았다. 정치인처럼 보이는 양복을 입은 남자에게 삼류건달의 아이콘인 꽃 남방을 그려 넣어 인간의 이중성과 기만을 표현하고 그 위에 스크래치 함으로써 동시에 상처받은 존재의 진실을 드러낸다.

삼류건달의 주인공들의 유머러스한 상황설정은 관객들로 하여금 관심을

이끌어낸다. 이렇듯 현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상상으로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은 본인이 대면하고 있는 현실의 풍자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달>시리즈는 본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풍자적이고 우화적인 블랙 코미디이다. 그 이면에는 ‘페이소스(pathos)⁷⁾’가 내제되어 있다. 여러 감정으로 충돌하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추구되는 인간의 ‘진실’ 사이에서 현대인의 표정을 보여준다.

7) 페이소스(pathos) : 사전적 어의로는 동정과 연민의 감정, 또는 애상감(哀傷感), 비애감의 뜻을 가지는 그리스어이다. 특정한 시대 · 지역 · 집단을 지배하는 이념적 원칙이나 도덕적 규범을 지칭하는 에토스(ethos)와 대립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통해 파토스가 가지는 내포는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정서적인 호소력’이라고 규정할 때 이 말이 지니는 예술적 · 문화적 현상과의 관련성이 가장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문학 작품이나 문학적 표현에 대해 독자가 ‘페이소스가 있다’, ‘페이소스가 강렬하다’라고 반응하는 것은 그 문학 작품이나 문학적 표현이 정서적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이다.



【작품 1】 복 서

【작품 1】 복 서

크 기 : 1200x900x2000 (cm)

재 료 : 특수 시멘트, 철근, 수성 페인트

제작 연도 : 2014

제작 과정 :

- 1) 작품의 대상을 구상해서 드로잉을 한다.
- 2) 철근을 재단하고 용접하여 기초 골조 작업을 한다. 알루미늄 철망으로 철근을 감싼다.
- 3) 시멘트를 반죽하여 직조 작업을 하며 양감과 묘사를 한다.
- 4) 시멘트가 완전히 건조한 뒤 수성 페인트로 채색을 한다.
- 5) 페인트 색을 보존하기 위해 바인더로 코팅을 한다.

내용 : 어린 적 TV 속 복싱 선수의 기억은 마지막 라운드 까지 얼굴이 통통부어 피투성이가 되어 처참하게 싸우는 모습이었다. 도대체 왜 저들은 무엇을 위해 저토록 힘겹게 싸우는 것일까.. 어른이 된 후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이해 할 수 있었다. 챔피언인생 보다는 인생자체를 도전자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남성을 표현 한 것이다. 비록 현실은 고통스럽고 외롭지만 미래의 꿈을 위해 냉혹한 현실과 열심히 싸우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재미있는 모습으로 표현 하였다.



【작품 2】 부 케

【작품 2】 부 케

크 기 : 2300x1200x2650 (cm)

재 료 : 특수 시멘트, 철근, 수성 페인트

제작 연도 : 2014

제작 과정 :

- 1) 작품의 대상을 구상해서 드로잉을 한다.
- 2) 철근을 재단하고 용접하여 기초 골조 작업을 한다. 알루미늄 철망으로 철근을 감싼다.
- 3) 시멘트를 반죽하여 직조 작업을 하며 양감과 묘사를 한다.
- 4) 시멘트가 완전히 건조한 뒤 수성 페인트로 채색을 한다.
- 5) 페인트 색을 보존하기 위해 바인더로 코팅을 한다.

내용 : 부케(Flower bouquet)는 결혼식 때 신부가 드는 작은 꽃다발로 주로 뒤로 던져 받는 사람이 다음번에 결혼한다는 속설이 있다. 따사로운 오월 행복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우리의 주인공들은 즐겁고 행복하다. 부케를 받은 여자 친구는 무척 즐거워하는데 무표정의 남자는 축쓰러워 하며 어색하기만 하다. 감정의 표현이 서투른 한국남자들의 성향을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했다. 아직까지 현대 남성에게 결혼은 부담스러운 일이며, 설레이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다. 기존의 정적인 형태에서 움직임이 있는 동적인 형태와 화려한 채색으로 변화를 주어 밝고 명랑한 이미지로 변화를 주었다.



【작품 3】 사랑 그놈

【작품 3】 사랑 그놈

크 기 : 1400x1000x2600 (cm)

재 료 : 특수 시멘트, 철근, 수성 페인트

제작 연도 : 2013

제작 과정 :

- 1) 작품의 대상을 구상해서 드로잉을 한다.
- 2) 철근을 재단하고 용접하여 기초 골조 작업을 한다. 알루미늄 철망으로 철근을 감싼다.
- 3) 시멘트를 반죽하여 직조 작업을 하며 양감과 묘사를 한다.
- 4) 시멘트가 완전히 건조한 뒤 수성 페인트로 채색을 한다.
- 5) 페인트 색을 보존하기 위해 바인더로 코팅을 한다.

내용 : 물질문명의 극대화로 치닫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더 많은 돈과 성공을 부추기고 있다. 성공한 사람만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누구보다도 진실 된 사랑을 한다. 그래서 사랑만큼은 자신 있고 행복하다. 목인 조각이 민화의 간접적 영향을 받은 것을 착안 하여 민화의 모란꽃을 표현 하였다. 모란꽃의 의미는 부귀영화 그리고 다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이 들어온다고 믿어 혼례식에서 병풍으로도 많이 쓰였다.



【작품 4】 관 심

【작품 4】 관 심

크 기: (남)1700x1200x3000 (여)1400x1000x2800 (cm)

재 료 : 특수 시멘트, 철근, 수성 페인트

제작 연도 : 2013

제작 과정 :

- 1) 작품의 대상을 구상해서 드로잉을 한다.
- 2) 철근을 재단하고 용접하여 기초 골조 작업을 한다. 알루미늄 철망으로 철근을 감싼다.
- 3) 시멘트를 반죽하여 직조 작업을 하며 양감과 묘사를 한다.
- 4) 시멘트가 완전히 건조한 뒤 수성 페인트로 채색을 한다.
- 5) 페인트 색을 보존하기 위해 바인더로 코팅을 한다.

내용 : 사랑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서로 다른 공간 에서 다른 삶을 살다가 운명적으로 만난다. 마치 먼 옛날에도 만났던 것처럼 빠르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간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하듯 서로에게 무한한 관심을 쏟는다. 그 관심의 시간들이 지날 때 뜨거웠던 사랑이 식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감각적인 채색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설레는 감정을 표현 했다.



【작품 5】 봄 바다

【작품 5】 봄 바다

크 기: 1800x1400x3300 (cm)

재 료 : 특수 시멘트, 철근, 수성 페인트

제작 연도 : 2013

제작 과정 :

- 1) 작품의 대상을 구상해서 드로잉을 한다.
- 2) 철근을 재단하고 용접하여 기초 골조 작업을 한다. 알루미늄 철망으로 철근을 감싼다.
- 3) 시멘트를 반죽하여 직조 작업을 하며 양감과 묘사를 한다.
- 4) 시멘트가 완전히 건조한 뒤 수성 페인트로 채색을 한다.
- 5) 페인트 색을 보존하기 위해 바인더로 코팅을 한다.

내용 : 사랑도 모르는 무식한 남자가 꽃피는 봄날 애인과 바다에 갔다. 아마 자신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남자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 옥색 빛 투명한 바다와 아름다운 여성까지... 문득 세상을 다 갖는다는 것이 이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무한의 자신감이 남자를 들뜨게 한다. 남자는 이렇게 행복이구나 하며 사랑을 조금 배웠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이 세상을 당당히 헤쳐 나 갈수 있을 것 같았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 바로 행복한 삶인 것이다. 풍부한 양감과 서정적인 채색의 칼라로 봄날을 표현 하였다.



【작품 6】 두 남자 이야기

【작품 6】 두 남자 이야기

크 기: 45x35x75 (cm)

재 료 : 합성수지, 아크릴 물감

제작 연도 : 2012

제작 과정 :

- 1) 작품의 대상을 구상해서 드로잉을 한다.
- 2) 철근으로 용접하여 기초 골조 작업을 해서 점토로 작업 한다.
- 3) 석고로 캐스팅 작업을 하고 합성수지로 다시 캐스팅 을 한다.
- 4)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한다.

내용 : 두 남자는 어떤 관계일까?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인 우리는 언제나 외롭고 힘들다. 우리는 갈등하는 두 인물의 드라마틱한 상황 속에서 마음껏 상상해 걱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한다. 두 주인공을 통해서 작가와 관람객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공유 하고자 한다. 두 남자는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주머니에 들어간 손과 어리숙한 표정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 평화를 추구하는 본질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은 남성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작품 7】 늦여름

【작품 7】 늦여름

크 기: 47x42x110 (cm)

재 료 : 합성수지, 아크릴 물감

제작 연도 : 2009

제작 과정 :

- 1) 작품의 대상을 구상해서 드로잉을 한다.
- 2) 철근으로 용접하여 기초 골조 작업을 해서 점토로 작업 한다.
- 3) 석고로 캐스팅 작업을 하고 합성수지로 다시 캐스팅을 한다.
- 4)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한다.

내용 : 일반적으로 진리를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기 위한 여래상과 보살상은 모두 기본적인 신체 구조가 여성적으로 표현되었다. 전체적으로 감각적인 부드러운 양감을 지니기도 하지만 대체로 근엄한 얼굴, 넓고 당당한 어깨, 벌어진 가슴, 그리고 당당하고 곧게 선 자세에서 매우 남성적으로 표현 되었다. 어머니를 표현하기 위해 부드러운 양감과 한국 어머니의 정서인 강인함을 표현하기 위해 불상의 모티브를 얻어 작업한 것이다. 채색에 있어서 빛바랜 색감은 어머니를 늘 그리워하는 추억 같은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였다.



【작품 8】 남자 둘

【작품 8】 남자 들

크 기: 30x25x62 (cm)

재 료 : 합성수지, 아크릴 물감

제작 연도 : 2014

제작 과정 :

- 1) 작품의 대상을 구상해서 드로잉을 한다.
- 2) 철근으로 용접하여 기초 골조작업을 해서 점토로 작업한다.
- 3) 석고로 캐스팅 작업을 하고 합성수지로 다시 캐스팅을 한다.
- 4)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한다.

내용 : 파란 만장한 인생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이 약간은 험상궂은 남자
들이 입을 짝 다물고 서있다. 무표정한 표정이지만 두 남자는 재미있고 친
근하다. 우리 주변 비슷한 친구의 모습이기도 하고 동네 바보 같은 건달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어떤 이야기를 전달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재미만을 주고자 만들었다. 인물 자체만으로 재미와 흥미
가 있다는 것만 으로도 관객들에게 재미를 유발 할 수 있다. 표현에 있어
어떤 부분에도 긴장을 넣지 않고 전체적인 선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도 부
드러운 선을 강조 했다. 채색에 있어서도 강렬한 색을 사용 하지 않고 무채
색으로 표현하였다. 본인의 기존에 작업한 민화채색기법과 반대로 수묵기법
을 시도한 작업이다. 텅텅한 채색의 느낌이 심심하고 그저 그런 남자를 표
현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작품 9】 큰 아들 내외

【작품 9】 큰 아들 내외

크 기: 55x42x72(cm)

재 료 : 나무, 먹물

제작 연도 : 2010

제작 과정 :

- 1) 작품의 대상을 구상해서 나무위에 드로잉을 한다.
- 2) 전기톱으로 커다란 덩어리부터 깎아 나간다.
- 3) 작은 끌을 사용해서 질감 표현과 얼굴 묘사를 한다.
- 4) 먹물을 채색한 후 다시 끌을 사용해 깎아서 농담을 표현 한다.

내용 : 우리 한민족 뿌리의 생명력은 굴곡 많은 지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끈질기고 강하게 이어 왔다. 장남이라는 큰아들의 인물과 존재를 통해서 가족사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상상력으로 표현 하고자 하였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에서 시작한 사회, 국가와 민족의 정서 깊숙이 박혀있는 관습과 욕망에 대한 집착을 은유적 묵언 기법으로 표현 하였다.



【작품 10】 여 행

【작품 10】 여 행

크 기: (여) 25x12x42 (남) 25x13x45 (cm)

재 료 : 호두나무, 아크릴 물감, 먹물

제작 연도 : 2010

제작 과정 :

- 1) 작품의 대상을 구상해서 나무위에 드로잉을 한다.
- 2) 전기톱으로 커다란 덩어리부터 깎아 나간다.
- 3) 작은 끌을 사용해서 질감 표현과 얼굴 묘사를 한다.
- 4) 아크릴 물감, 먹물로 채색한 후 다시 끌을 사용해 깎아서 농담을 표현 한다.

내용 : 민화에서 나타나는 민중들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표현은 화법에서 뿐만 아니라 채색의 선택에서도 나타난다. 민화는 채도와 명도가 높은 강렬한 원색계통의 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물들을 밝고 경쾌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다. 이 작품은 70년대 초 신혼여행을 모티브로 중매를 통해 결혼해 서로 어색하고 서툰 감정 표현을 밝은 분위기로 표현 하였다. 민화의 채색 기법을 빌려 주인공들의 감정 상태와 분위기를 표현하고 간결한 형태와 단순한 얼굴 표현으로 한국적 정서를 담았다.



【작품 11】 길

【작품 11】 길

크 기: 2000x1300x2300 (cm)

재 료 : 회 록 암

제작 연도 : 2013

제작 과정 :

- 1) 작품의 대상을 구상해서 돌 위에 드로잉을 한다.
- 2) 전기톱으로 커다란 덩어리부터 깎아 나간다.
- 3) 작은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질감 표현과 얼굴 묘사를 한다.
- 4) 망치와 정으로 마지막 옷감 질감을 거칠게 표현한다.

내용 : 어디론가 떠나는 것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엄마와 딸아이 두 여성이 길 위에 있는 이 상황은 어딘지 슬프고 애잔한 느낌이이다. 과거 70, 80년대 한국의 가정사를 이야기 하는데 가부장적인 가정에서의 피해는 거의 모든 여성에게 돌아갔다.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누구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을 우리의 가정사를 과감한 생략과 단순한 형태로 표현 하였다. 인물의 개인적인 성격 보다는 중심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얼굴 표현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작업 했다.

Ⅲ. 결 론

조각에서 관객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작가가 택한 특정한 정지된 상황이나 장면을 보게 된다. 이때 관객은 입체가 주는 조각 언어를 통해 쉽게 자신과의 공통적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개인적인 상상과 관찰을 왕복하며 작품에 동질감을 느끼며 각각 개인적 역사의 장면과 자신의 마음속 이미지로 감상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본질에 가까워 질수 있는 의식 전환이 가능 하게 된다. 심각한 사회분열을 겪고 있는 소외된 현대인에게 이러한 의식 전환의 경험은 인간자체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뚱뚱한 복서와 뺨뺨머리의 비대한 건달 남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간상을 보여준다. 여기에 복서는 “넓은 장갑”이라는 소도구를 활용하고 뚱뚱하고 못생긴 건달은 화려한 꽃 남방과 어수룩한 양복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과시한다. 이 표피들은 그 뒤에 감춰진 인간의 내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치인 것이다.

이 주인공들의 무표정과 정적인 형태는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 고독과 불안을 표현하기 위한 조형적 언어이다. 불상의 얼굴표현과 민화의 채색 기법, 그리고 목인 조각의 간결한 형태는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무념의 상태에서 생명의 힘을 표현하기 위해 한국 전통 미술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감정을 가라앉히는 정적인 미를 통해 상처받은 현대인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는 회화적 표현으로 관객으로 하여금 쉽게 실물로 옮겨 기존의 도덕성과 불합리한 전통 가치를 드러나게 하여 일상적 삶의 복귀에 있어 개인의 역사적 상처를 가늠해 볼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 된다. 전체적

으로 간결한 형태를 유지하는 작업 방식은 시멘트 직조 작업을 통해 간결성과 직관성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이 작업 방식은 평범함 속에 담겨져 있는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형상을 지극히 감각적이고 직관성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본인이 찾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숨겨져 있던 어떤 것을 발견하는 데서 온다. 익숙한 것을 주제로 한국의 전통 미술이 갖는 이미지, 형태, 기법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유분방한 변화. 뚜렷한 색채 감각들과 함께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유산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본인의 내적 세계관을 투영하기에 좋은 소재가 되고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가장 가깝고 친근하게 존재하는 한국 전통 미술은 관람객과 원활한 정서적 연결을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작품의 인물상을 통해 현대인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인간성의 회복과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과의 소통에 도움이 되고자함을 밝힌다. 그리고 다채롭고 창의적인 표현을 기르고 재료 탐구와 기술적 연구를 하여 한국 미술의 흐름에 발전적 영향을 주는 작가가 되기를 희망 하며 이 논고를 마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우방 저, <불교조각 1>, 솔, 2003
- 국립 청주 박물관 편집, <불교 동자상>, 솔, 2003
- 강영계 저, <니체와 예술>, 한길사, 2000
- 목인 박물관 저, <목인 박물관 주요 소장품 도록 제1권>, 목인 박물관, 2006
- 정병모 저, <민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돌 베게, 2012

2.번역본

-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저, 김성희 역, <봉인된 시간>, 분도, 1991
- 하버트 리드 저, 김성희 역, <간추린 서양 현대조각의 역사>, 시공사, 1994
- 프리초프 카프라 저, 이성범 역,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1998
- 제라드 두로조 저, 이정실 역, <BOTERO>, 중앙 일보사, 1994

3.인터넷

- 네이버 사전 : 아카데미즘, 블랙유머, narrative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ABSTRACT

A Study on Expression of Human Figure - ON THE BASIS OF MY WORK -

Kim, Won Geun
Dept. of Sculpture
Graduated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dangers of material civilization and structural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in modern society have become increasingly serious in the 21st century. Rampant materialism have caused spiritual destitution and human alienation, ceaselessly generating immoral crimes even amongst material abundance. Our defiance against and conquest of nature have devastated “living spaces,” and mechanical civilization has forced us to conform to an inhuman way of life, which warns of the future extinction of our race. In addition, our view of the world, that formerly embraced the order of nature as the basis for life, has changed to human-centered view of nature, which has served to separate humans from it and has caused them to see nature from an ideal conception.

The consistent concern in the researcher's works is based upon the thought that beings in the modern civilization should be close to nature experience through transition ceremony by himself. All the

representations of human images in the present anxious life are the attempts to remind us that human dignity by affirmation and instinct of humor.

This thesis, which addresses the mental backgrounds and expression methods in the researcher's works,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part which lists the research purpose and its methods.

Chapter 2 the subjects and expression methods are explained which are adopted to show the point of view that the consciousness of human dignity is the alternated human images in the modern civilization with the backgrounds of the works. In addition, to explain individual works, photographs are presented along with their production methods and contents.

Chapter 3 is the conclusion part where the overall thesis is summarized with comments on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researcher's creative works.